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Apr. 6th, 1926.

>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The author,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actors of Great Britain, has leen manager of the Lyceum, the Prince of Wales Theatre, the Covent Garden Opera House.

He has played a great variety of roles.

but is known chiefly as a Shakespearean.] I was born at Wyvenhoe, in Essex, where my grandfather founded a shipbuilding yard, and my father, John Harvey, in due course succeeded to the business, which under his enterprising management built up a fine reputation for designing and constructing racing yachts. My mother was the daughter of the descendant of a well-known Welsh family, and whose name is loved today

by all followers of Swedenborg, the Swedish mystic. Such blood flowing in

my veins probably accounts for my natural love of things artistic. As a boy, I do not remember much of Wyvenhoe, for my father thought the low-lying district rather unhealthy, and I was packed off to school when quite young; but my first memory is rather a painful one. I recall sitting with my sister in the old roomy house attached to the shipyard. We were in tall chairs, and mine happened to topple over. I fell into the fire and was rather

badly damaged. So my first important recollection of life burned itself in.

余의 俳優生活(割비) (→)

四南

八七一牌桶

豫想보叶

・事 翰

%可当本でで平風理髪組合

在日留學生現狀

사양부청 안해있는 자긔친당에 사망하는동시대신국(大神宮)안해서 등등정관에게 일관들반다가 순행 등소까지 온것인바 일반의군중 인 동행하여온 이월청춘의미인 5라그밤하더라(평양) 一大田市山里) 2世紀 (大馬南南山里) 2世紀 (大田田(石)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石)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石)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石)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田(石) 2世紀 (大田田) 2世紀 (大田) 2世

의 서 大 만을과 망 당가지되야 현재다만 평안남부 도당국의 의견라협으로 연취되 는모양이나 허가는 곳시일분데 라는바 사실로 통회사가 열분데 되야 인주면해(安州沿海)의 어업 대부분이 그히사에도라간 다면롱트레노로 서관 산업계에 다소발날이아니되는것은아니겠 원검이역 순장성찰쇠를 거워서로 용의 라모인 바이의 하면된 의 사람이 무 주기를시작한 바이의 하면된 기계 시급 다 주기를시작한 부 산중량민들 이 그 자의 형과 도당을 두려워함 다 주기를시작한 부 산중량민들 두려워함 보는 사가 연습을 따라 된 바로양이 나이는 자면 건물장 원 이 나이는 지를 보면 살 하는 지를 보면 살 수 있다면 된 기계 시를 보면 살 수 있다면 된 기계 시를 보면 된 기계 시를 보

一題消息

인권부우각의(仁川府牛角里)원 백이번디에사는 최수덕(祖院 생(13))은 지난달이십일오후다 첫시경에 인권부송립의(仁川府 삼林里)이백오십번디 김순구(金順九)의 집에 아모도업는 교리가 관장되었다.

飲毒自殺

少年窃盗常習

湖青年會 龍乙青時代、朝鮮日報高

고든

의로군고촌면대리(金浦郡高村) (蘇漢水)(盟)는지난삼월이십일 바밀한시삼십분에부권군제양면

醉客慘死

점시들하야보실과 모히증독자보관명 역(黃金町)오염목이십칠번디압 의시대한아가 노여있는것을 보다 남자

黄金町の

新春音樂講演

日人醫師智

で 対のハロいと

文川驛前에도

風潮의罪
は

因習の夢

0

傷害致死犯

は対象が基金をは、全地学品群)がテロ を合せイエコ(井色都市がテロ を合せイエコ(井色都市がから、朴成彦)当るがや 

-기지역음발표

金子文子(三)

農民
言討索
か
に
凶
漢

동명이지급면보)

자 당신업시안됐다가곳죽이바린바 유의의 진찰한결과 간이떠린위 주인것으로 관명되야 진찰위에 있는 길바이탈살으라고 사방으로 도수색하다가무탈된지난이일에 당소산밖면에쉬잡았다더라(것을)

葡萄酒值上